

# 텔레비존극문학에서 설화의 형상적기능에 대한 리해

안 철 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극적인 방식이라고 하여 순전히 극적인것만 있는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서정적인 요소와 서사적인 요소도 다양한 형태로 침투되어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226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극문학의 다양한 형태에 따르는 극적방식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거기에 서사적인 요소와 서정적인 요소를 특색있게 잘 결합시켜나아가야 한다.

지난 시기에 창작된 텔레비존극문학들은 물론 최근에 나온 텔레비존연속극문학들인 《자기를 바치라》, 《징벌》, 《방탄벽》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설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돋구며 인물의 내면심리세계를 개방하여주고 극성을 보장하는 등 작품의 예술적효과를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설화는 대사, 지문과 함께 극문학에서 언어적표현의 세 요소를 이룬다. 여기서 대사와 지문이 주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나타낸다면 설화는 그들의 내면심리를 개방시켜주며 등장인물과 생활, 사건에 대한 리해를 돕거나 그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태도를 표현한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 설화의 형상적기능은 무엇보다먼저 작가의 주정토로를 대신한다는것이다.

작가의 주정토로는 작품에 형상된 생활과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자신의 립장과 태도, 사상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론성과 호소성, 서정성을 띤다. 뿐만아니라 소설의 고유한 형상수단으로서 소설에서 작가가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주정토로를 설화형식으로 도입하여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적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작품의 정서적인 여운을 더 크게 해준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투쟁해온 로병이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유산이다. 이 유산을 어찌 천만금의 재물에만 비기랴.

전세대가 간직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무한한 헌신, 바로 이 정신적유산을 물려받은 후대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어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값비싼 유산이 어데 있으랴. 이런 값비싼 유산을 넘겨받은 축복받은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한것이다.》(텔레비존연속극문학 《로병의 유산》)

이 설화는 세상에서 혁명정신이라는 가장 값높은 유산을 넘겨주는 전세대와 그것을 넘겨받는 새 세대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태도, 결론이 호소성, 서정성, 정론성이 강한 문체로 강렬하게 형상되어있다. 이러한 형상적효과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보다 설화를 활용할 때 더 최대로 높일수 있다.

이처럼 설화는 작품에 묘사되는 생활과 사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태도, 사상감정을 반영한 주정토로를 대신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해명에 이바지한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 설화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작품에 묘사되는 사건의 시대적환경과 배후관계, 등장인물들의 리력이나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있는 극적인 정황이나 인물관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암시, 설명으로 형상의 간결성과 립체성, 극성을 높여준다는것

이다.

설화는 작품의 서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대적환경을 간명하게 밝혀주는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텔레비존련속극문학의 첫 장면형상에 활용되고있는 설화수법은 대체로 이러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설화는 사건의 배후관계나 등장인물들의 복잡다단한 리력을 한번의 계기를 통해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사건의 복잡한 배후관계나 등장인물들의 리력을 대사나 화면으로 형상하는것보다 설화로 밝혀주는것이 극형상에서는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실례로 텔레비존련속극문학 《왕재산》에서의 설화를 들수 있다.

《홍선미와 눈물속에 헤어진 철송은 그후 청운의 뜻을 품고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찾아다녔으나 결국은 열혈의 기를 꺾고 간도의 어느 한 도시에서 샳집을 지며 절망속에 헤매였었다. 허나 그에게도 재생의 광명이 비쳐왔으니 철송은 길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혁명의 참된 길을 찾게 되였고 그이의 사랑속에 단련되고 세련된 투사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에 북변의 온성땅에서 눈물속에 헤여졌던 사랑하는 선미를 보게 되었다.》

이 설화는 온성지구에 파견된 주인공 심철송이 혁명의 길을 찾아 헤매던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비약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심철송과 홍선미가 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리념을 가지고 기이하게 만났다는것을 구체적인 화면이나 대사형상이 없이도 명백하고 간결하게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심철송과 홍선미사이에 앞으로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리라는것을 암시해주고있다.

이처럼 설화는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알수 없는 극적인 정황이나 인물관계, 앞으로의 일을 미리 관중에게 예상시켜줌으로써 극적긴장성을 조성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 설화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사건의 폭을 넓히고 화면과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며 비약과 생략을 실현시켜준다는것이다.

설화는 작품에서 사건의 폭을 넓히고 화면과 장면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리용된다.

작품에서 사건의 폭을 넓히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수법을 활용하지만 설화를 리용하여 그 예술적효과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것은 정태무가 생각하듯 무심히 스쳐보낼 일이 아니였다. 별치 않게 생각했던 그 가짜상자사건이 장차 세인을 경악케 할 위험천만한 사건과 얽혀지게 되리라는것을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고있었다.》(텔레비존련속극문학 《징벌》)

이 설화는 주인공 강진혁이 복락관에서 잃어버린 상자를 놓고 호안부장 정태무에게 보고하는 장면에서 울린다.

설화는 작품의 감정세계를 등장인물들과 관중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으로 비약시켜 이끌어가면서 준엄한 투쟁을 예감하고 남다른 각오를 가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드러내보이고있다. 이와 함께 관중들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건들에 대한 강한 극적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설화의 도움이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이 모든것을 전달하자면 부득불 설명하는 식의 장면들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반람극인 작품에서는 작품전반이 처지게 되고 극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위험천만 한 사건》,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고있었다.》와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진 설화를 통하여 사건의 폭을 넓히고 작품의 극성을 높이는 예술적효과를 나타내게 하였다.

설화는 작품에서 기본이야기발전체제와 크게 인연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들을 대담하게 비약, 생략하고 작품들의 전반내용을 련관시켜주어 극형상의 간결성을 보장하는 형상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이야기발전체제와 크게 인연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은 그자체가 아무리 흥미있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형상하면 작품의 중심이 흐려지고 이야기줄거리의 산만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군더더기로 될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재치있게 비약시키고 생략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설화를 통해서도 해결한다.

《내가 평양에 자리잡은지도 여러달이 흘렀다. 그 나날 여기저기서 쏘라닥거리던 일곱놈의 적〈화살〉들이 우리의 보안기관에 의해 적발소탕되였다.》(텔레비존연속극문학 《방탄벽》)

작품에서는 이 한 문장의 설화로 주인공 정옥금이 해방되어 평양으로 올라와 활동한 여러달이라는 시간을 비약시켰다. 일곱명의 적〈화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 복잡다단했을 수많은 이야기는 주인공의 시점밖에서 벌어진 일인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가며 구성된 이야기발전체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이것을 설화를 통하여 비약시키고 생략하였다. 설화의 이러한 형상적기능은 줄거리가 산만한 작품들을 제값으로 빠지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설화는 장면들의 내용을 련관시켜 리해할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기도 한다.

작품들에서는 모든 사건들과 세부, 일화들이 하나의 주제를 해명하는데로 지향되어 이야기줄거리가 전개되게 된다. 그런데 이야기줄거리가 생활의 논리에 맞게 흘러가자면 반드시 꼭 알려주어야 할 대목도 있게 된다. 그렇다고 그 대목을 스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덧붙는다면 작품의 주제가 흐트러지거나 줄거리가 중심을 잃고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다.

텔레비존극문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설화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자가 미국동군사령부 정보국장 찰즈 월로우비소장이다. 일체가 패망한 1945년 8월 다음달인 9월 미중앙정보국 장관 알렌 델레스가 조선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에서의 공산세력의 확대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도교에 파견한 정탐모략의 피수이다.》

《남조선강점 미 제14군단 〈지투〉의 책임자 쎄씨리스크대좌, 이자는 남조선강점 미국동군사령부의 찰즈 월로우비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날로 그 위상이 높아가는 북조선지도부를 제거할 목적밑에 온갖 테로와 파괴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한 극악한 음모가이다.》(텔레비존연속극문학 《징벌》)

이 설화는 두개의 화면을 통일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미제의 비열하고 악랄한 테로와 파괴활동만행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따로 사건으로 전개하지 않고도 순간에 예리하게 폭로단죄하였으며 특히 등장인물의 과거와 성격을 알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설화는 극적형상의 간결성과 집약성, 립체성과 극성을 보장하는데서 무시할수 없는 형상적기능을 가지고있는 수단인것으로 하여 텔레비존극문학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극문학창작가들은 텔레비존극문학에서의 설화를 인물의 성격과 극조직에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부단히 탐구하여야 할것이다.